

산지의 草地化에 있어서 當面한 課題와 開發方向

農學博士 金東岩

〈서울大學校 農科大學教授〉

5. 축산 및 초지개발정책의 지속화

초지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란 양축농가가 자력으로 필요한 초지를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우리의 여건하에서 농가가 자력으로 일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광대한 면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전업 또는 기업양축가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형의 행정 및 기술지도 그리고 재정적 지원 없이는 초지개발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초지개발을 유리한 새 형태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지의 최종생산물인 축산물 특히

그 중에서도 사초(飼草)에 의하여 쇠고기와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정책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에서는 정부주도형의 초지정책의 수행없이 우리나라에서 초지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당면한 여건을 감안하여 과거와 같은 축우산업(畜牛産業)의 정책적인 불안정에 의한 초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시행착오를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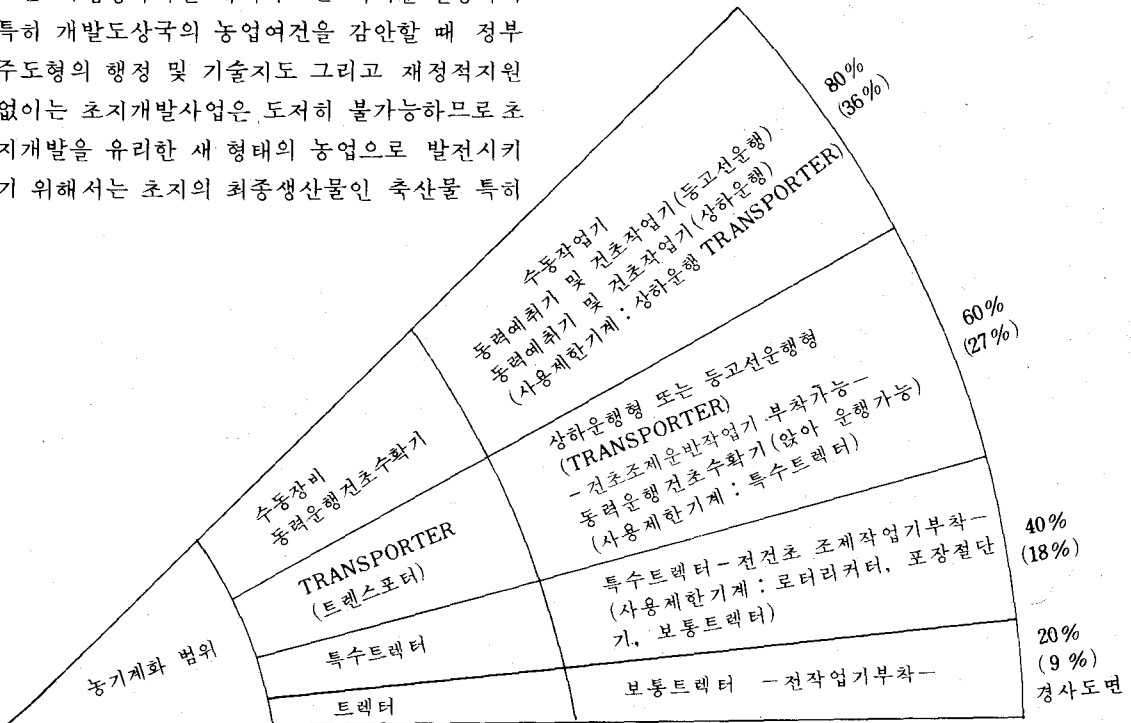


그림 1. 산지초지의 경사도에 따른 농기계의 가용한계

풀이 하지 않도록 기허 발표한 축산진흥과 산지초지개발 10개년계획을 중단이나 후퇴없이 성실하고도 강력히 집행하여 나아가는 것 만이 한국에 있어서 초지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6. 산지초지개발의 기술시범과 거점 목장육성

앞에서 우리나라의 산지를 초지화하는데 있어서는 국토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간위주로 조성하는 경운초지보다는 지표면의 경운없이 초지개발이 가능한 불경운초지개발의 적합성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불경운초지개발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2~3년이 소모되며 계속적인 방목과 예취에 의한 사후관리기술이 개량기술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단편적인 기술훈련이나 평지에서의 경운초지개발 기술 주입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초지개발초기단계에서 불경운초지가 실패한 것도 초지개발기술의 이식이 불완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지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산지초지개발사업이 성공하였고 대관령의 선진목장들을 중심으로 과상적으로 퍼져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기허 창설된 산지개발 목장들이 산지초지화에 있어서 살아 있는 시범교육장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초지개발에 있어서 기존 목장들의 시범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지대한 기능을 음미해 볼 때에 각지대별로 1~2개의 산지초지개발 시범목장을 민간수준에서 새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육성하는 방안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산지를 개발하여 이룩된 목장들은 강원도의 대관령지역 이외에 수개소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시범효과 및 교육장소로서 거리감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간목장을 전국적으로 더 지역안배를 시켜 육성함으로써 인근 양축농가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개발을 원하는 농가가 먼거리에 있는 대관령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인근거점목장에서의 견학과 접촉을 통하여 초지개발 및 초지에서서의 가축관리기술의 실무를 쉽게 익히므로써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산지개발에 획기적인 기폭제적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7. 초지개발규모의 영세성과 단지화유도

우리나라의 삼림에 대한 소유구분을 보면 사유림이 전체 삼림면적의 73%, 국유림이 20%, 공유림이 7%이다. 그런데 사유림면적은 477만 ha로 삼림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소유규모로 보면 1ha미만이 55.9% 그리고 5ha미만이 약 88%로 사유림의 경영규모는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어 삼림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1983년도 초지조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조성면적중 개발규모 1~3ha미만이 전체 초지조성대상 농가수 2,118호의 70%에 해당하는 1,488호이며, 3~5ha 규모가 400호로서 18%, 5~10ha 규모가 184호로 9%, 10~50ha 규모가 45호로서 2% 그리고 50~100ha 규모가 1농가로서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ha미만의 초지조성농가가 전체 조성농가의 88%가 되어 이는 삼림소유 규모와 같은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한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려할 때에 현재와 같은 영세한 상태의 초지개발 규모인 1~5ha의 초지목장경영으로는 도시의 중간계층에 속하는 봉급자의 소득수준과 대등한 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임으로 현재와 같은 영세한 초지개발의 개선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유일한 방법로서는 첫째, 기존 산림에서 새로운 초지를 더 많이 개발하는 일이고, 둘째는 영세초지농가를 인근의 기존 선진 초지농가가 흡수하고 통합하여 확충해 나아가는

유럽식 경영규모확충법을 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장래에 있어서 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낙농이나 비육농가의 규모확충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농가별 소규모초지를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산조성시키는 초지개발정책을 개선하여 거점지역의 단지내에 개별조성을 시킴으로써 초지위주의 축산단지를 형성케하여 결과적으로는 장래 초지축산의 전업화 내지는 기업화 시대에 대비한 초지개발 규모의 확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8. 요약

앞의 각항에서 논의된 초지개발의 과제와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의 산지개발은 경사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개간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양유실의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었고 불경운개발방법의 토착화를 저해하였다.
2. 임업계가 우려하는 초지조성시 산지황폐의 문제는 초지의 임지와 같은 토양보전 기능면이나 현 한국의 초지개발시 불경운초지 위주 개발 상황하에서 과거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다.
3. 산지중 초지개발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면적은 총 1,325,318ha로서 전국토 면적의 13.4%에 해당된다.
4. 산지의 개발유형중 장래의 식량생산적 관점에서 그리고 토양유실의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서 초지개발이 유리하다.
5. 초지개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발에 뒷받침이 되는 정부산하의 각 지원체제를 정비 강화해야 한다.
6. 초지조성에 있어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야 한다.
7. 초지개발 농기계의 개발과 구입에 정부의 보조 및 융자제도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입시 면세가 고려되어야 한다.
8. 현재 수행되고 있는 축산진흥 및 산지개발 계획은 중단없이 성실히 정부가 지속시켜야 한다.
9.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지의 초지개발은 불경운초지 중심으로 개량하되 초지개발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점목장을 민간수준에서 권장육성시켜 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한다.
10. 2000년대에 있어서 초지축산이 전업화 내지 기업화에 대비하여 현재의 산발적이고 영세한 분산된 초지조성을 점차 단지내 인접농가 단위로 묶어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끝)

부록 1. 식생에 따른 토양의 지표류 토양유실량 비교

지표식생 또는 토양	강 수 량 (cm / ha)	경 사 도 (°)	지 표 류 (%)	토 양 유 실 량 (T / ha)	반 복 수
삼 림	12.7	16.4	0.34	-	24
마 누 카 관 목	8.9	20.2	0.16	-	19
야 생 아 마	12.7	15.4	0.60	-	6
타 스 크 야 초 지	12.2	14.4	0.57	-	10
고 사 리 우 접 지	7.6	18.4	0.55	-	24
채 초 지(비방목)	7.6	15.0	3.03	-	22
우량방목지(방 목)	7.0	17.4	42.2	0.076	30
과방목초지(방 목)	7.0	20.5	63.0	1.637	14
침 식 방 목 지	8.1	20.3	64.2	3.811	14
표 토 완 전 침 식 지	7.4	20.0	66.5	14.573	16
화 입 한 방 목 초 지	7.6	17.5	55.5	1.651	5